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소식

쌍용양회공업(주)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실시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11월 14일과 21일 각각 김장 담그기 행사와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참여 인원이나 규모만으로도 동해시를 대표하는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16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11월 21일 진행된 사랑의 연탄 배달을 통해 가깝게는 공장 정문부터 멀게는 무릉계곡과 달방댐 부근까지 삼화동 12개 통에 걸쳐 동해공장 100여 명의 임직원이 1만장의 연탄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했다. 동해공장 여직원 모임인 '사나래'도 음료수와 빵을 들고 땀 흘리며 연탄을 배달하는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한편, 쌍용양회 영월공장도 11월 6일 인근 쌍용·후탄리 일대에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모두 45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 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겨울 추위를 걱정했던 어려운 이웃들은 쌍용양회의 연탄 배달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동해공장 방문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11월 14일 국내 건설사 자재 담당자 협의체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의 방문을 받았다.

이날 방문은 건설 기초자재인 시멘트산업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데 20여 개 건설사 자재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방문자들은 동해공장 본관 2층에서 공장 전반에 대한 소개와 시멘트 제조공정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한 후 광산을 비롯해 통합 COP, 원료조정실 등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들은 동해공장 규모에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특히 제조공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동해공장 방문이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시멘트산업을 대표하는 동해공장이 잘 운영되어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전했다.

묵호공장, 사내 무재해 3배수 달성

쌍용양회 묵호공장이 11월 20일 사내 무재해 3배수를 달성했다. 묵호공장은 지난 2001년 11월 21일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총 13년 동안 단 한 건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쌍용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사내 무재해 1배수를 동해공장은 1년, 영월공장은 2년, 북평공장은 3년, 분쇄공장 4년, 그리고 출하공장은 5년을 기준으로 확정, 운영해 오고 있다.

동해공장, 공장혁신활동 교류회 개최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11월 13일 무릉관에서 2014년도 공장혁신활동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5개 분임조와 6개 개인 테마, 그리고 OPL 등 모두 12개의 테마가 발표됐다. 생산1팀 소나무분임조가 '5, 6호 사일로 하부 인출 정상화로 Loss 감소'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월공장도 12월 4일 공장혁신활동 교류회를 개최했다.

한편 생산공장 혁신활동 교류회는 분임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혁신 사례의 수평 전개로 현장개선활동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동해와 영월공장 교류회에서 각각 수상한 분임조 및 개인 테마는 12월 19일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에서 열리는 전사 분임조 혁신활동 교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황소봉사회, 대통령표창 수상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황소봉사회가 지난 12월 5일 서울 벨라지움 호텔에서 안정행정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한 '201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황소봉사회는 2002년 5월 기계팀 및 전기팀 직원 12명으로 출범하여 현재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국경일 및 공휴일을 택하여 시골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농기계 및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 수리 봉사활동을 12년째 꾸준히 펼쳐왔다.

단양공장, 세계표준의 날 KS인증대상 수상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14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KS인증부문 KS인증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단양공장은 2004년 ISO 9001인증을 획득하고,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서 5종, 기타 고로슬래그 시멘트,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 KS제품을 다수 보유하여 KS 품

질 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 추진 및 개선활동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와 표준화 기반을 구축해온 것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KS인증 부문 포상은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제품 경쟁력 강화와 KS인증 제품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단양공장 분임조 국가품질경영대회 은상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생산팀 '불꽃'과 '소백산' 분임조가 지난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한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부문에서 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총 298개 품질분임조, 4,000여명의 분임원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2012년에 기계팀 바꿔 분임조가 동상을 받았고, 2013년에 생산팀 소백산 분임조가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3년 연속 우수분임조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실험실 및 후생동 준공

한일시멘트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동을 지난 11월 28일 준공했다. 30억여원을 들여 5개월에 걸쳐 건립한 후생동은 전체면적 3,000㎡에 식당과 샤워실, 협력사 직원 사무실 등을 갖췄다.

이번 후생동 완공으로 그동안 낡은 시설에서 불편을 겪던 근로자들의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사에 신축 사무실을 제공해 협력사 직원과의 소통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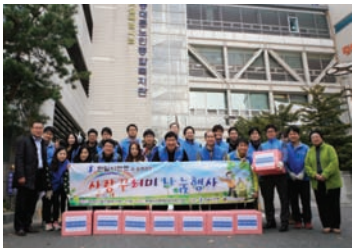
2014 단양공장 한마음 체육대회

한일시멘트가 지난 10월 17일 단양공장 한일료 운동장에서 '2014년 단양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명의 한일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파도타기, 다함께 OX퀴즈, 사랑의 원자탄, 800m 계주 등 총 7개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모두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마음껏 웃고, 땀 흘린 즐거운 축제가 되었다.

사랑꾸러미 나눔 행사

한일시멘트 봉사단 WITH가 지난 11월 21일 서울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사랑꾸러미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임직원 30여명은 동대문 종합노인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 가정 60가구를 방문해 라면, 김, 쌀 등이 담겨있는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대시멘트(주)

2014년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

현대시멘트가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교육 및 실무능력 검증을 거쳐 기업문화에 가장 적합한 인재 선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인턴과정을 통해 하루빨리 최고의 현대시멘트인이 선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기계발 교육 실시

현대시멘트는 지난 11월 6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은주 강사를 초빙해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변화'라는 주제로 자기계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및 강연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숲 가꾸기 행사 참여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임직원들은 2014년 11월 14일 단양군에서 주관하는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 비료주기 체험활동을 펼쳤다. 단양군 영춘면 화전민촌에서 실시된 체험행사에서 직원들은 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 비료를 정성껏 주었고 자신이 돌본 나무들이

무럭무럭 크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람된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임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회사 인근 4개 농가를 방문하여 콩베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물질적인 지역사회 환원사업과는 달리 마음으로 동화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세아시멘트(주)

최명화 파트장 '기술유공자 대상' 수상

아세아시멘트 수원공장 최명화 품질관리파트장이 지난 10월 16일 비체펠리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4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기술유공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콘크리트 기술자들의 사기 고취, 콘크리트산업의 경쟁력 강화,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중요성 인식 확산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최했다. 최명화 파트장은 실무경력,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기여도, 콘크리트 기술향상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활동 등 콘크리트 기술발전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석용 공장장, 지역사회 발전 유공 표창

지난 11월 3일, 아세아시멘트 수원공장 황석용 공장장이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황석용 공장장은 다양한 봉사실천 및 지원활동 전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표창을 받았다.

황석용 공장장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신입사원 발령장 수여식

지난 9월 12일과 11월 3일, 아세아시멘트 김관회 제천공장장은 수송파트 김종휘 사원, 본사 회계파트 여광원 사원 등 신입사원 11명에게 발령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14년 노사화합연수 실시

아세아시멘트는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충남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2014년 노사화합연수를 시행했다.

연수에는 양승조 본사 지원기획본부장, 김관회 제천공장장, 이종각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상체질과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특강과 기념사, 노사 한마음의 장, 명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연수를 통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천공장 형광분임조, 국가품질경영대회 은상

지난 11월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형광분임조가 우수분임조 부문 은상을 받았다.

형광분임조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하여 '소성로 연질 투입공정 개선으로 고장 건수 감소'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대회 참가 및 수상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한편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11월 품질경영활동에 앞장서 산업계 품질제일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기업, 우수분임조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창립 제49주년 기념식

아세아시멘트 창립 제49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월 19일 본사와 제천공장을 비롯한 전 사업장에서 시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윤무 부회장이 30년 근속패를 받았으며, 본사 연구개발팀 권오봉 부장 등 8명이 30년 근속패, 본사 전산팀 원환식 과장 등 9명이 20년 근속패, 본사 총무팀 조성국 대리 등 9명이 10년 근속패를 받았다. 본사 재무팀 최득환 과장을 비롯한 6명이 모범사원으로 선정되어 사장 표창을 받았고, 제천공장 환경안전팀 이근욱 대리 등 3명이 공장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제천공장 공무팀 이기훈 대리는 안전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훈범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도전과 학습하는 능력,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며 경쟁력 향상과 내실경영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및 무재해 달성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지난 9월 24일 3분기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쳤다. 환경안전팀장, 안전보건 파트장 등 직원 10여명은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공장 입구에서 한 시간 가량 캠페인을 펼쳤다.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10월 8일 제천공장과 원료/생산파트가 무재해 3차 달성을 하였다. 또한 품질연구파트도 11월 3일 무재해 13차 달성을 하였다.

한편, 10월 22일에는 서울레미콘 공장이 3분기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승준 공장장, 이호원 관리파트장 등 직원들은 안전수칙을 제창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세아시멘트 직원들은 무재해 지속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성신양회(주)

시멘트영업본부 교육 실시

시멘트영업본부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차 영업사원 스킬향상교육을 시행하였다. 제품, 원가, 채권관리, 모범영업기법 등 영업사원으로서 숙지해야 할 필수 요소들로 기획된 본 교육은 앞서 시행되었던 3월과 6월에 비해 내용이 더욱 나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교육 담당자들이 본사, 청주, 대구 등 각 거점 지역으로 찾아가서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성신 텐핀스팀 볼링대회 우승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제17회 충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에서 성신 텐핀스팀(단양공장 생산1팀 김종일, 전재윤, 노무팀 김성진)이 우승을 차지했다. 볼링은 동호인이 많아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도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회 관계자는 "총 11개 팀이 참가한 직장부 3인조 대회의 우승자라면 실력이 프로 선수 못지않다는 뜻"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소방방재청장 표창 수상

성신양회 구리공장 관리팀 박만수 사우가 지난 11월 7일 제52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평소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박만수 사우는 "단지 구리공장을 대표해서 제가 받은 것일 뿐 공장의 모든 분들이 평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라며 "앞으로 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반기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성신양회 레미콘영업본부가 11월 9일 구리공장에서 제4회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KS 초고강도 20-80-650으로 지난 3회 때보다도 구현 강도를 올렸다. 그래서인지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후문이다.

총 13개 팀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주공장 품질관리실 '콘길' 팀이 100점 만점에 94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서부발전과 연료분야 협력 MOU 체결

성신양회와 한국서부발전이 유연탄 및 석탄회와 관련한 업무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11월 5일 역삼동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유연탄 구매 및 수송, 석탄회 자원화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유연탄 구매 경쟁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지원하고, 성신양회는 확보된 유연탄으로 수급 비상시 물량 스

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영철 서부발전 관리본부장은 "발전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연료의 안정적, 경제적 조달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연료구매의 노하우와 안정적 재고유지 기술 등 양사가 지닌 강점을 살려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채용예정자훈련 진행

성신양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기능직 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 달 간 시멘트 공정 전반, 설비보전 및 자동제어운용에 관한 집중교육을 통해 채용 확정 후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으로 채용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은 성신양회에서 처음이며 업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전병각 공장장은 "이 제도가 성신양회가 기술 중심의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확대,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종로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수상

11월 26일 종로구가 실시한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성신양회 영업기획팀 박은수 부장, 총무팀 최문수 과장이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을 받았다.

매달 주말 본사에서 주관하는 '이웃나눔 실천(자원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두 사람에 대해 종로구 차원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두 사람은 수상소감을 통해 "함께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만 표창을 받아 부끄럽다"며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성신양회 현장 관리직 대상 안전교육 실시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성신양회 현장 관리 감독자 107명 전원이 라파즈한라시멘트 안전실습교육센터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받았다. 동종업계에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안전실습교육센터를 방문한 것은 2013년 아세아시멘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안전교육을 주관한 최선진 성신양회 환경안전팀 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 감독직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업계 최고라고 알려진 라파즈한라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견학하고 체계화된 현장 중심의 안전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AF 운송사 간담회 개최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공장 안전실습교육센터에서 지난 9월 23일 AF 운송사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공장 투어와 SOP 교육은 물론 AF 운송과 관련해 공장 내 팀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도로수송 안전, 고소작업, 개인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안전교육도 같이 진행되었다.

각 공장별 봉사활동 실시

라파즈한라시멘트 서울사무소 SOHSC 4조 김권중 팀장, 심우하 과장, 마은선 대리, 김훈 사원, 차선영 사원은 9월 19일 미혼모 쉼터 열린집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날 4조는 미혼모를 위해 환경미화활동과 아기돌봄활동 외에도 전자레인지와 생필품도 기증했다. 열린집 미혼모 임산부들은 이에 대해 "쉼터에서 좀 더 다양한 간식을 먹을 수 있어 좋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인천공장에서는 9월 17일 항만 암벽과 공장 주변에 정화활동을, 옥계공장에서는 9월 19일 버섯채취에 나섰다 실종된 주민 수색작업을 위해 30여명의 직원들이 동참했다.

여성 엔지니어 장려 위한 K-Girls Day 실시

강릉원주대학교 화학신소재학과 여대생 4명이 K-Girls Day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9일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을 방문해 회사소개와 안전실습교육센터 견학 및 체험, 공장투어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옥계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엔지니어 선배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K-Girls Day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 행사는 여대생을 초대해 실제 작업장 및 연구소를 보여주고 기술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KCA 기자단 옥계공장 방문

지난 10월 31일 한국시멘트협회와 시멘트 담당기자 10명이 라파즈한라 옥계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시멘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시멘트 담당기자들에게 국내 시멘트 회사 공장 견학을 통해 시멘트 생산과정 및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옥계공장을 방문한 기자들은 안전실습교육센터를 방문해 안전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에 관해 철저한 라파즈그룹 내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안전보건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SOHSC 사회봉사활동 실시

라파즈한라시멘트 SOHSC 5조가 10월 16일 '만수무강 어르신 사랑의 밥차' 봉사를 다녀왔다.

만수무강 밥차는 영등포구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사회의 어르신,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1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음식 준비, 설거지, 배식, 안내 및 정리정돈 봉사

중 5조는 설거지 담당으로 어르신들이 깨끗한 식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옥계공장, 월동준비를 위한 지역 봉사활동

라파즈한라시멘트 공계공장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29일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향교를 방문해 낙엽제거 및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11월 25일에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옥계면 남양2리에서 1사1촌 봉사활동을 가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종일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고추밭 정리작업과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사무소, 복지관 바자회 활동 지원

라파즈한라시멘트 서울 SOHSC 6조가 11월 20일 대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박성진 대리, 황경식 부장, 신현섭 과장, 김두일 차장, 조시연 사원, 이미영 대리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바자회에 사용할 POP 및 포스터를 제

작하는 작업을 도왔다.

한편 대방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열어 모금된 기금은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안전어울림활동에 365일 캠페인 접목

안전어울림활동은 자율안전 및 참여문화 정착을 목표로 라파즈한라옥계공장과 포항·광양공장, 이천기술지원팀의 모든 분임조 구성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현재 23개 분임조가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각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안전어울림활동의 차별성은 자율성이다.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활동했다면 안전어울림활동은 분임조 조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정해 직접 개선하는 작업이다. 특히 11월 안전어울림활동은 라파즈그룹 본사에서 진행하는 365일 캠페인과 접목시켜 같이 진행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원이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12월 안전어울림활동 컨설팅 일정은 계속해서 라파즈한라시멘트 포털 게시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옥계주민들과 7년째 막걸리-와인장치 개최

라파즈한라시멘트는 12월 9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전통 5일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막걸리-와인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는 옥계 전통5일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과 면민의 화합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옥계 5일장터에서 열리고 있다.

축제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이 준비한 옥계지역 막걸리와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준비한 햇와인인 '보졸레누보' 시음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떡메치기, 파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풍물놀이, 난타와 같은 공연으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매년 임직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미셸 푸셔코스 대표이사는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잔치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급 우수리 모아 9년째 이웃돕기 성금

12월 4일 강을시 옥계면 사무소에 특별한 성금이 전달되었다.

지난 1년동안 라파즈한라시멘트 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통장에서 1,000원 미만의 우수리 기금으로 조성한 520만원을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들의 여울나기 생필품 구입에 사용해 달라며 옥계면 사무소에 전달한 것이다. 올해로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 직원들의 우수리 기금 모금 운동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06년 처음 시작되었다. 자칫 쓸모없는 돈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적은 금액을 모아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것이다.

김영환 라파즈한라시멘트 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나눔행사 동참

라파즈한라시멘트는 강릉시 옥계면번영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6일 개최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나눔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새마을부녀회,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자율방범대,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번영회, 옥계농협, 포스코, 관내기업체 등 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지역 유관기관과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 등 264가구와 관래 경로당 21개소에 쌀 20kg 239포, 김장김치 239박스, 라면 239박스, 국수 239세트, 연탄 16,100장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미셸 푸셔코스 대표, 한국경제와 인터뷰

라파즈한라시멘트 미셸 푸셔코스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12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직원은 물론 고객, 업계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밝혔다.

미셸 푸셔코스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국내 건설경기가 오랫동안 불황을 겪고 있지만 인적자원(HR)관련 예산을 깎지 않고 인력 관리와 교육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시멘트업계 1·2위 회사인 쌍용시멘트와 동양시멘트의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상황이 좋아졌다"며 "앞으로의 목표는 국내 시멘트 시장 1위"라고 강조했다.

한국씨엔티(주)

본사 임·직원 입암산 산행

한국씨엔티 본사 임·직원은 지난 10월 9일 장성 입암산으로 추계산행을 다녀왔다. 전남대 수련원에서 시작하여 갓바위를 다녀오는 10km 구간을 전원 낙오없이 완주했다.

김훈석 사장은 "경치가 아름다운 입암산 산행을 통하여 직원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충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2014년도 마무리를 잘 하고 향후 임·직원들과 산행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시멘트사업부문 체육대회

한국씨엔티는 지난 10월 26일 경주 강동초등학교 단구분교장에서 시멘트사업부문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체육대회는 단체계주 및 족구, 노래자랑 등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최성운 부문장은 "이번 행사는 시멘트사업부문 임·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소통증진을 위한 자리"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유당문화재단(이사장 최상옥)이 한국씨엔티와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1월 12일 한국씨엔티 순창공장 교육실에서 유당문화재단 최상옥 이사장을 대신하여 한국씨엔티 김훈석 사장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순창관내에 연고를 둔 대학생과 고등학생 28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김훈석 사장은 "학업에 정진하여 순창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재들로 성장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유당문화재단은 남화토건 최상옥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2000년부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